



힌두교 성지 중 한 곳인 인도 바라나시의 갠지스강은 짙은 어둠이 깔린 후에도 배를 탄 순례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갠지스강은 인도의 젓줄이자 강 자체가 '강가'라는 이름의 여신으로 숭배된다.

/인도 바라나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인생 철학·가르침의 원전…세계인의 문화콘텐츠 충분”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23부 인도편

7 석학이 말하는 '라마야나'

산띠니께탄 = 임동률 기자 exian@kwangju.co.kr

인도 전역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해외 여행객이 '라마야나'(Ramayana)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현지인의 눈빛은 달라진다. '힌디'(Hindi)에게 생활의 경전으로 추앙받는 라마야나에 대한 이방인의 관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반갑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방인을 만나 한 순간 수다쟁이로 변한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라마야나에 대해 얘기하기 바쁘다.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인도편 취재에 나선 광주일보 특별취재팀은 라마야나와 관련해 현지에서 철학교수와 문화학자, 라마를 모시는 사제(司祭) 등 다양한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다. 인도 전역을 관통하는 이 대서사시를 두고 이들은 "이 훌륭한 이야기가 원전 그대로 세상에 널리 퍼

과 수행을 하고 있다. 라마야나는 결국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인생 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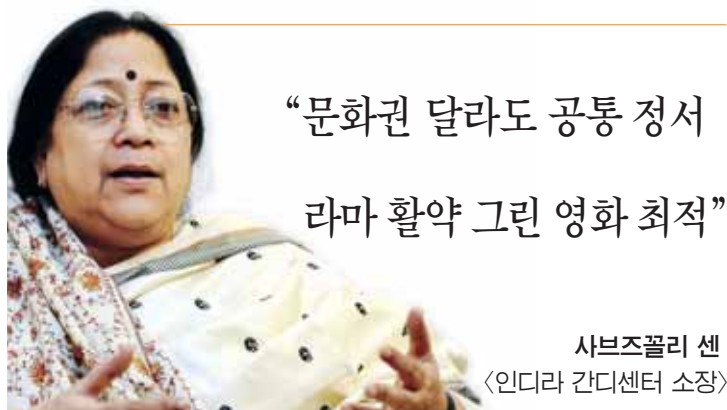
▲사브즈풀리 센=라마야나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 펼쳐져 있다. 모리셔스를 아는가? 아프리카 동쪽의 조그만 섬인 모리셔스의 주민들도 라마야나를 알고 있다. 세네갈, 기아나에도 라마야나가 퍼져 있다. 인도와 국경을 맞댄 동남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다. 문화권이 다르지만 라마야나는 사람들이 좋아할 공통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난 라마야나를 읽을 때마다 라마와 시파의 사랑에 매료된다. 시파가 납치됐을 때 람이 얼마나 슬퍼하고 시파를 생각하는지, 우기가 되면 '아! 비가 내리고, 땅이 젖었네', '아! 시파가 있으면 함께 꽃을 보며 길을 걸을텐데...'. 이런 글을 볼 때마다 한 사람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다. 라마와

에도 공감했겠지만, 그 영화를 외국인인 본다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차라리 총체적인 이야기를 압축해서 한 편으로 선보이는 게 낫겠다. 걸 모순만 보게 될지라도, 관심을 가진 그 누군가는 이 방대한 이야기에 다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리즈 쿠마르 다스=당연히 라마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원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가르침과 교훈을 얻어야 한다. 특히 평화를 위한 다면서도 우리 인간은 무력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훌륭한 이야기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인도인들은 라마의 신성에 압도된 나머지 받들기만 했지, 그 신성을 다양하게 퍼뜨릴 생각은 다들 못한 것 같다.

한국에서는 라마야나를 어떻게 요리하고 싶은가? 인도의 이 고유한 이야기를 발달된 영상산업을 통해서 화려하게 만들어달라. 다만 원전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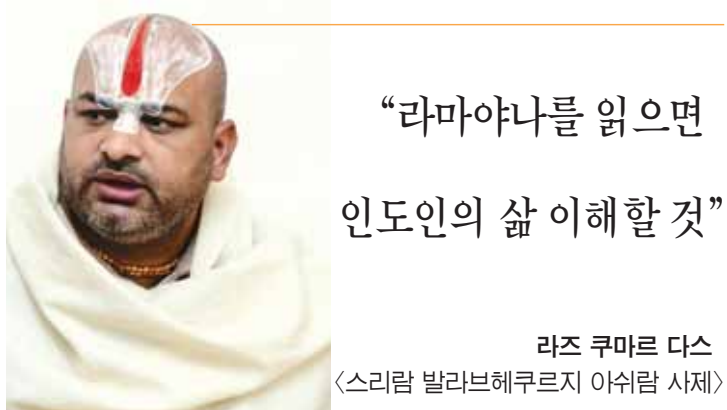
“문화권 달라도 공통 정서 라마 활약 그린 영화 최적”

사브즈풀리 센 <인디라 간디센터 소장>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띠니께탄의 사브즈풀리 센 인디라 간디센터 소장과 아요디아에 있는 श्रीराम बालाबहेरुजी आश्रम의 리즈 쿠마르 다스 사제, 뉴델리 인도국립문예진흥원의 श्रीनिवासरा오 책임비서는 라마야나의 가치를 설명하며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격한 감정에 빠지다가도 냉철하게 현재의 시점으로 라마야나를 이야기했다.

- 인도인들이 라마야나에 열광하는 이유는 ▲리즈 쿠마르 다스=라마는 비슈누(Vishnu)신의 아바타(Avatar)로, 신이면서 인간이다. 완벽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라마를 조금이라도 따라한다면 선(善)을 향하는 길로 들어선다. 라마야나를 읽은 이들은 모두 자기 식대로 내용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배우려 한다.

깊숙히 살펴보면 라마야나에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인생 철학이 들어있다. 라마도 중요하지만 동생인 바라타의 형을 위한 '헌신'은 내 인생을 휘감고 있는 화두다. 왕위 욕심을 버리고 절저히 위대한 형을 위해 사는 바라타의 모습은 아름답다. 사제로서 나 또한 라마에게 헌신하기 위해 고행



“라마야나를 읽으면 인도인의 삶 이해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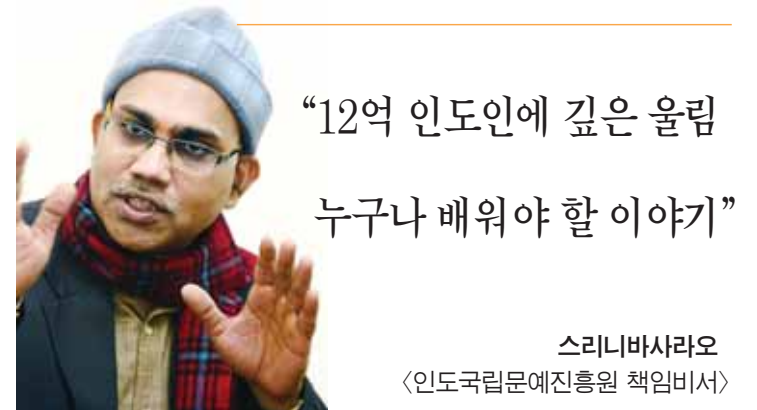
리즈 쿠마르 다스 <श्रीराम बालाबहेरुजी आश्रम 사제>

시파 사이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고리가 존재한다. 장대한 러브스토리다. -라마야나는 그 '인기'에 비해 미디어를 통해 널리 소개되지 않은 것 같다.

▲사브즈풀리 센=인도인들은 경건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쉽게 다른 매체로 다루는 것을 원치 않았다. 라마의 그 신성함이 잘못 표현되면 대중들이 대단한 분노를 느낄 것이다. 영화산업이 활발한 인도에서도 그런 이유로 TV 드라마 외에는 소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라마의 활약을 화려한 영상으로 보길 원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의 해석을 가하지 않고, 그 시대에 맞춰 훌륭히 재연한다면 영화가 가장 어울린다고 본다. 책은 요즘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다(웃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양에 깔린 기본 정서가 있다. 약에 맞서는 용기, 훌륭한 이에 대한 존경 등 라마의 장점을 강조한다면 모든 이들이 즐길만한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스리니바사리오=고향이 인도 남부 케랄라주인데 라마야나의 팔막한 부분을 다른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라마가 14년 동안 숲에 살던 시절만 다른 영화다. 인도인들은 전부 라마야나를 알기 때문에 부분적인 이야기



“12억 인도인에 깊은 울림 누구나 배워야 할 이야기”

스리니바사리오 <인도국립문예진흥원 책임비서>

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라마야나는 인도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사브즈풀리 센=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으로 나가지 않는다. 람, 둘, 셋이다. 람은 모든 것의 첫 번째다. 인도인들은 매주 금요일 라마야나를 읽고, '람차라마나스'(힌디 라마야나)는 성경처럼 매일 저녁 읽는다. 가장 큰 축제인 '두르가 뿌자'(Durga Puja)가 열리는 9일 동안은 온통 사 람들이 라마 얘기만 한다. 라마야나는 인도인들의 삶 그 자체다.

▲스리니바사리오=표준어격이 되는 힌디를 포함, 인도에는 24개의 지역 언어가 있다. 내가 일하는 국립문예진흥원에서는 이 24개 언어에 맞춰 라마야나를 번역했다. 이 이야기는 인도인이려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누구나 배워야 하는 이야기다. 12억 인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내용이라면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말 아닌가.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허니문 고객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십 카드인 신양 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객실이용시 4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가족모임(돌잔치, 교회연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현수막, 케이크 서비스)
-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휘트니스 이용시 4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시
-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단 본인2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제과 전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

